

“초심 잃지 않고 변화 만들 것” 생활인구 읽고 지역미래 설계하다

‘3선 성공’ 황인홍 무주군수 당선인, “군민 기대 행정으로 보답” 감사 뜻 전해

3선에 성공한 황인홍 무주군수 당선인은 지난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6·3 지방선거 관련 기자회견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무주가 변화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고 밝혔다.

황 군수는 “저는 무소속으로 활동하다가 이번에 민주당에 들어와 선거를 치렀다”며 “제가 살고 있는 무주 지역은 전북 안에서 사실상 경쟁터 같은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상도와 충청도가 맞닿아 있는 접경지역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선거 분위기와 정치 환경이 매우 치열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초심을 잃지 않고 기본사회를 확실하게 만들어 나가겠다”며 “무주가 전북 안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열



3선에 성공한 황인홍 무주군수 당선인은 지난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6·3 지방선거 관련 기자회견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무주가 변화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고 밝혔다.

심히 뛰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군수는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

는 행정으로 보답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무주=손흥기 기자

무주 백운누리센터, 주민 밀착형 거점시설 자리매김

무주군 실천면에 조성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핵심 거점시설인 백운누리센터가 주민 주도의 운영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생활권의 증진에 기여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군은 지난 1월 문을 연 백운누리센터가 실천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 아래 주민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의 새로운 공동체 거점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는 무주군이 추진한 실천면 소천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핵심 사업인 ‘삼도봉정터 복합화 사업’의 결과물로 조성됐다.

지역 상권 활성화와 주민 커뮤니티 공간 확충을 목표로 2024년 5월 착공해 지난해 7월 준공됐다.



특히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당시 구상했던 공유주방과 식당, 지역 특산물 판매 공간 등을 주민들이 직접 구현해냈다.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총사업비 68억 원이 투입된 백운누리센터는 지상 2층, 연면적 1499㎡ 규모로 조성됐다. 1층에는 공유주방과 식당, 떡 카페,

목 전문점, 코인빨래방 등 공동이용시설이 마련됐고, 2층에는 공유사무실과 건강증진실, 실천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사무실이 들어서 있다.

코인빨래방은 세탁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며 경제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 주민 복지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목쳐먹는 집’은 지역에서 생산한 썬과 아르니아, 뽕잎 등을 활용한 목밥과 산나물밥 등을 제공하며 향토 먹거리 문화를 이어가고 있다.

‘떡 카페’에서는 직접 채취한 썬으로 만든 썬떡과 썬찰떡, 가래떡 등을 판매하며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무주=손흥기 기자

‘태권도원배 전국태권도선수권대회’ 무주서 개최

제12회 태권도원배 전국태권도선수권대회가 지난 6일 개막해 오는 15일까지 무주 태권도원과 무주국민체육센터 일원에서 열린다.

대한태권도협회와 태권도진흥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태권도 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북특별자치도와 무주군, 무주군체육회, 무주군태권도협회 등이 후원한다. 대회는 겨투기와 품새 종목으로 나

뉘어 진행된다. 겨투기 경기는 6일부터 11일까지 태권도원 T1경기장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펼쳐진다. 이어 13일부터 15일까지는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공인품새 개인전과 복식전, 단체전 경기가 열린다. 각 종목은 부별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대회에는 중등부와 고등부, 대



학부, 일반부 선수들이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겨투기 종목에는 2700여 명, 품새 종목에는 1700여 명 등 440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해 전국 최고 수준의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무주=손흥기 기자

진안군, 정주민구 253명 증가·생활인구 1만7299명 늘어

진안군은 정주 인구나 생활 인구가 동시에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며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군 2026년 5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24,414명으로 전월 대비 41명 증가했으며, 올해 1월 1일 기준 인구 24,161명과 비교하면 253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5년 1월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5월에는 전입 141명, 출생 11명으로 증가 요인이 감소 요인을 크게 상회했다.

출생아 수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군은 의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정주여건 개선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인구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한 ‘소중한 진안아이 성장앨범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의 성장 과정을 기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진안군은 의료·복지 특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공공의료 기반 확충,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추진 중인 행복주택 공급, 농촌유학 활성화, 청년·귀농귀촌 정착 지원 사업 등도 인구 유입과 정착 기반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주거·교육·일자리 분야를 연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들이 실



직적인 정주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인구 증가세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5월 28일 발표된 국가 데이터 기반 생활인구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5년 진안군 생활 인구는 203만 2,38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84명 대비 17,299명(0.9%) 증가했다.

특히 2025년 4분기 생활 인구는 54만 5,13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184명 증가했으며, 체류 인구는 등록 인구의 6.2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이산, 운장산, 구룡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계절별 관광자원, 각종 축제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진안을 찾는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한 결과로 분석된다.

생활인구 증가는 단순한 방문객 증가를 넘어 지역 소비 활성화와 관계인구 확대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실제로 진안군은 전주시를 비롯한 전북권과 대전권을 중심으로 꾸준한 유입이 이어지며 생활인구 기반을 넓혀 가고 있다.

진안군은 ‘2026~2027 진안 방문의 해’를 추진하며 관광·문화·체험 프로그램 확대와 체험형 관광 콘텐츠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대표 관광자원과 축제, 농촌체험, 생활인구 연계 사업이 시너지를 내면서 방문객의 체류시간 확대와 관계인구 형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제7회 현충일 추념식’ 숭고한 희생 기려

진안군은 지난 6일, 진안읍 충훈 불멸탑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넋을 기리기 위해 ‘제7회 현충일 추념식’을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거행했다.

이날 추념식은 전충성 군수를 비롯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보훈단체 회원, 학생, 군 장병 등 23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지켰다.

행사는 오전 10시 정각, 전국에 울려 퍼진 묵념 사이렌에 맞춰 시작되었고, 참석자들은 육군 제773부대 1대대 장병들의 조총발사와 함께 1분간 묵념하

며 호국영령의 희생을 추모했다. 이어지는 헌화·분향, 추념사, 헌시 낭독, 그리고 현충일 노래 제창까지 행사의 엄숙함을 더했다.

전충성 군수는 추념사를 통해 “우리가 오늘날 평화롭고 자유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유가족분들의 인내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그 숭고한 헌신을 절대 잊지 않고, 앞으로도 국가 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높

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 관계기관 합동점검

장수군은 2026년 상반기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가공업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학교급식법」 제16조와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에 근거해 추진됐으며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고 급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장수군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관내 업체 1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장수군을 비롯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수출장소, 장수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영양교사 등이 참여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추진됐다.

점검반은 여름철 식중독 예방과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해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 관리 상태 △소스비리간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작업장 환경 및 납품 차량의 위생 관리 상태 △냉장·냉동시설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반려식물 만들기 체험 교육 참가자 모집

진안군은 일상 속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치유를 돕기 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도심 속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식물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반려식물 만들기 체험 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

교육은 6월부터 9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되며, 회차별로 다양한 생활원에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1회차 교육은 오는 6월 23일 농업기술센터 원예교육장에서 ‘우드칩 화분 만들기’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1회차 교육 신청 기간은 6월 9일부터 17일까지이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QR 코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모집 대상은 반려식물과 치유농업에 관심 있는 진안군민이며, 모집 인원은 선착순 20명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